"회사 좋아도 CEO리스크 탓에" 우량株의 눈물

ESG등급 낮아져 종목 배제 경우도
해외서 지수 탈락시 주식 수급 영향
높은 등급 받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최근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기업들이 ESG 등급 조정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했다. ESG 등급이 낮아지면서 ESG 지수를 추종하는 각종 인덱스 펀드(주가지수 추종 펀드)에서 종목이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다.

ESG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고려한 평가지표를 말한다. 향후 국민연금이 ESG 등급을 투자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업의 ESG 등급은 중요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기업 ESG 등급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기업지배구조위원회를 열어 등급 산정에 관한 심층 회의에 돌입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예상치 못하게 비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한 기업의 등급조정을 위해서다.

〈2017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 결과〉 /자료=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명	ESG등급	지배구조	사회	환경	평가년도
대한항공	B+	B+	B+	A	2017
아시아나항공	B+	B	A	B+	2017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받았던 사회(S)부문의 A등급, 대한항공의 B+등급은 올해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SG 등급은 지난해(B+)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처음으로 ESG 등급 산출방식을 세분화했다. 기존에는 비슷한 기준으로 모든 업종을 평가했다면 올해부터는 금융업종을 따로 분류해 규준을 마련했다. 평가부문 가중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구조원의 설명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최근 ESG 등급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더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했다"며 "기업도 ESG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게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 5월 금융정보 전문업체인 와이즈에프엔(Wise FN)은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을 ESG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최근 불거진 CEO 리스크로 ESG 평가 점수가 하락한 영향이 크다.

세계 최대 지수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 6월 정기변경에서 'MSCI 코리아 ESG 리더스 지수'에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중공업지주를 제외했다. MSCI는 매년 2월, 5월, 8월, 12월 해당 지수의 정기변경을 실시하는데 이번 정기변경에서는 기존 4.04% 편입하던 현대모비스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지주(1%), 현대위아(0.22%)를 제외했다. 업계에서는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제외된 데는 최근 지배구조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KRX) 역시 오는 12월 'KRX ESG 리더스 150'의 정기변경일에 대한항공의 비중을 줄이거나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데 올해 등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아직까지 ESG 펀드에 빠지는 것과 주가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편입 조정이 시작된 6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각각 13.6%, 16.9% 하락했지만 이는 유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 감소와 연계관계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ESG자산규모는 지난달 기준 4666억 달러(약 502조원)이다. 사회책임투자(SRI)가 활성화된 해외에서는 ESG 지수에서 종목이 탈락하는 즉시 주식 수급에 영향이 간다"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ESG를 평가하고, 시장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ESG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핫해핫해 감사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8월 말까지 영업점 국내 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핫해핫해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월간 주식 거래금액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고객 중 매월 30명을 추첨해 최신형 건조기, 무선 청소기, LED마스크, 제습기, 초고속 블렌더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월간 거래금액 최상위 6명에게는 1백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박원옥 WM전략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시는 많은 분들께 푸짐한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만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하이투자증권

총 50억원 규모 ELS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3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을 총 5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HI ELS 1535호'는 코스피200(KOSPI200) 지수, 홍콩항셍(HSCEI) 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8.60%(연 6.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상 10만원 단위다.

/손엄지 기자

KB증권

'해외주식 아카데미' 개최

KB증권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KB증권 대치지점에서 전문가가 직접 알려주는 '해외주식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주요국에서 신흥국까지 확장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한 고객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KB증권의 해외주식전문 PB와 세무전문 PB가 직접 나서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국내 첫 중국 동포 출신 중국주식전문 PB인 김철 과장의 '2018년 중국 유망종목 및 중국 바이오 기업 탐방 후기'를 시작으로, 본사에서 해외주식투자 컨설팅을 담당하다 해외주식전문 PB가 된 전래훈 과장의 '미국 4차산업 관련 종목 및 베트남 핵심 기업 탐방 후기' 등이 예정돼 있다.

/김문호 기자

하반기, 내집마련 '달라진 제도' 뭐가 있을까?

수요억제 정책·과제 개정안 맞물려
임대소득 과세 특례 등 세금도 변경

올 하반기 부동산 관련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과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의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개정안이 겹쳐 과거와 같은 갭투자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일 "앞으로 주택 매입·보유·매각 등 모든 단계에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바뀌는 제도를 꼼꼼히 숙지해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절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부동산 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무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비 문제를 개선하고 1~2인 등 나홀로 세대의 가구 분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정부는 교통·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연내 공급(사업승인)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분양형으로 공급하지만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육아 등 맞춤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교육 맞춤형 시설을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및 기금 대출 연계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연말 위례신도 508가구, 평택고덕 873가구 등 2개 선도지역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와 함께 대출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수요억제책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사라진다. 특히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축소되면서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가 어려워진다.

세금도 크게 달라진다.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주택 임대수익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에서 내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 받는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1.8%)을 과세하고, 전용면적 60㎡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특례가 올해 말 사라진다.

연말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해 주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출시된다. 지원대상은 만 35세 미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용면적 60㎡ 이하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960만원(월 40만원)이다.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하고, 대출금리는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보다 0.5%포인트를 우대해 보증금대출은 1.8%, 월세 대출은 1.5%의 금리를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 규모와 방법이 달라지는 만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새로운 제도에 맞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환경

시기	내용
6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7월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방지
	수익형부동산 광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위한 중요정보 고시 개정
7~10월	제2금융권(상호금융업·여전사)의 DSR 도입
	부동산임대업 등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7~8월, 10~11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결정회의
9월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비소구 디딤돌대출 등)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공동주택 부실감리 차단
10월	주거급여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군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 및 배상추진
12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적용기한 종료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기준 조정 및 적용기한 종료
	임차인보호장치 강화(임대료 증액기준 합리화,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임대차 분양조정위 실효성 강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 상향 등)
	공동주택 성능등급표시 확대
	기존주택 세대구분 기준 완화
	신혼부부 희망타운 첫 공급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해소(의무관리대상 확대, 동대표 자격확대, 관리비 내역공개대상 확대 등)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하반기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 방안으로 택지 인센티브 부여

자료/국토교통부

롯데건설

'나인원 한남' 시공사 선정

롯데건설이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의 시공을 맡는다.

롯데건설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하는 '나인원 한남'의 시공을 맡아,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이어 국내 고급주택 건설에 나선다.

나인원 한남은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대에 들어선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5~9층의 9개 동, 전용면적 206~273㎡ 총 341가구다. 이곳은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한남대로와 가깝고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설계는 국내 공동주택 설계사인 ANU와 건축설계 회사인 SMDP가 맡았다. 조경설계 분야에서 거장으로 꼽히는 일본의 사사키 요우지가 자연 친화 단지를 계획했다. 배대용 B&A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소장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한다.

롯데건설은 시행사 디에스한남의 '삶을 짓다. 집다운 집'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나인원 한남을 완성할 계획이다. 기본에 충실하되 격조 높은 공간을 완성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인원 한남은 단지 내 중앙공원과 연계된 1km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한다. 산책로 가운데엔 수영장, 사우나 시설, 호텔급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헬스시설, 다목적 체육관, 실내외 프라이빗 파티 공간, 키즈카페, 와인창고 등이 들어선다.

프라이버시도 강화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외부인 출입제한 시스템)와 4단계 보안체계, 원패스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층마다 단독으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동간 거리도 최대한으로 확보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